

사업자 위주 개발 '아파트 숲' 안된다

'일몰제' 도시공원 어떻게

〈상〉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광주 도심하파 25곳 중 10곳 대상
3년 뒤엔 생명의 숲 사라질수도
공공성 기준 마련해 보존 시급

마지막 남은 도심의 허파이자 생명의 숲인 도시공원을 3년 뒤에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광주시가 도시공원일몰을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개발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도시공원은 모두 25개. 시는 재정 여건상 이들 공원 중 15개만 매입하고, 나머지 10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모든 공원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탓에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이라는 교육지책을 선택했다. 하지만 자칫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문제의 해법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기업 제안방식 보다 '공공성' 기준 마련 시급=광주시의 민간개발 방식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 기준을 우선으로 한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자 제안 방식이다. 사업자에게 숲과 환경성을 기준으로 개발해줄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기업의 속성상 개발은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도시 가운데 여름 기온과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타 도시에 비해 녹지가 부족한 광주시의 숲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업자 제안방식의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을 사거나 급기야



생명·문화의 숲 중외공원 오는 2020년까지 광주 도시근린공원 10곳이 개발된다. 이들 공원의 30%가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 예정이어서 자칫 생명의 숲인 도시공원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대상 중 두번째로 면적이 넓은 중외공원의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구분	공원	위치	면적(㎡)
1단계	수량근린	광산구 소촌동	29만6211
	마복근린	서구 마복동	22만6150
	송암근린	남구 송하동	52만4927
	봉산근린	광산구 산월동	29만4369
합계			134만1657
2단계	중앙근린	서구 용암동	293만9337
	중외근린	북구 운암동	243만9131
	일곡근린	북구 일곡동	106만6166
	영산강	영산강 주변	106만3787
	송정근린	광산구 소촌동	53만6274
신용근린	북구 신안동	10만195	
합계			824만4890
총합			958만6547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비화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곳들이 있다.

천안 노태산 공원 민간개발은 사업성과 공공성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이다. 이 공원 인근은 대부분 아파트이고, 도로 옆에는 대형마트가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중이다. 문제의 불씨는 공원부지의 북서쪽이었다. 사업자

들은 대부분 분양(사업성)을 고려해 인구가 몰리는 북서쪽을 아파트나 호텔로 개발하는 제안을 접수했다. 천안시는 인구와 교통량이 집중될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체를 1위로, 호텔 건립을 내세운 업체를 2위로 선정했다. 반면 시민이 몰리는 북서쪽에 공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공원 진출입구를 고려한 광장계획 등 공공성을 제고한 업체는 3위로 평가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지역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업체 선정 순위가 뒤바뀌는 잡음 끝에 개발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이 사업자 제안방식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시는 제안서 마감(9월8일) 전에 개발 범위와 방향, 공공성 확보, 경관지침 등을 담은 제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존' 노력이 우선=광주시가 1, 2차로 나눠 추진하는 민간개발 공원 10곳의 총 면적은 약 950만㎡로 수완지구 면적(463만㎡)의 2배를 넘는다. 이중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하는 30%도 수완지구의 60%

가 넘는 엄청난 면적이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대략 5만 세대 이상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현대 사회에서 숲은 어떤 사회간접자본보다 중요한 녹색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시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도시공원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들도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민간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고 면적이 가장 넓은 광주의 중심공원인 중앙·중외공원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전 시민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우선 개발 대상 10개의 공원 가운데 최소 1곳은 국가지정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민,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또한 영산강공원과 같이 근린공원의 성격보다는 자연환경으로서의 가치가 큰 시민공원을 개발 대신 지구단위계획이나 녹지지역 지정 등을 통해 정비 위주의 개발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강경화 임명... 3野 강경 모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표류

추경 6월국회 처리 힘들 듯

안경환 범무 후보 자진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 정책의 사령탑이 된 강경화 장관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진 두 번째 고위 공직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 대재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협치를 않겠다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 후보자는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며 "국회의외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협치가 실종됐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강경화 장관 임명 건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정부조직법 처리 등과는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여야가 강한 대치 전선을 형성함에 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장기 표류하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보수 야당들의 반대로 추경 및 정부조직법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폭염 ... 대구보다 더운 '광프리카'

이틀째 경보... 풍암동 35.7도

'불볕 더위' 광주 최고기온

지난 17일 광주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올들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진 대구보다 하루 앞서 발효돼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라는 용어가 굳어가는 기후를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발효된 폭염경보가 이틀째 이어졌다. 무더위는 19일에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뿐만 아니라 함평·장흥·영암·보성·강진에도 이틀연속 33도를 넘는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폭염특보는 전남 1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되는 날이 이를 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 2시 낮 최고기온은 광주 풍암 35.7도, 순천 황전 34.4도, 구례 34.2도, 곡성 33.8도, 광양 33.7도, 보성 33.4도까지 올랐다. 화순·나주·순천·광양·구례·곡성·담양에는 지난 16일부터 폭염주의보가 지속하고 있다.

경북과 경남 곳곳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조선대 이사회 공백 갈등 증폭 ▶7면

1위 싸움 자신감 넘치는 KIA ▶20면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35.2	34.8	35.7	34	33

리는 등 전국이 때 이른 폭염에 고통받고 있다.

이번 폭염은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서풍계열의 더운 바람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이 없어 기온이 빠르게 오른 데다 따뜻한 남서풍까지 더해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20일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기상청은 19일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의 날씨는 맑겠다고 예보했다. 이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32~34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해남출신 박정화, 조재연 변호사 대법관 임명 제청

해남 출신으로 광주중앙여고를 나온 박정화(51·사업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재연(61·127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프로필 2면〉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조 변호사

와 박 부장판사를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 취직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대를 야간으로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해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사건에서 소



조재연 후보자



박정화 후보자

신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박 부장판사는 서

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박 부장판사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다정다감한 성격에 온화하고 배려심이 매우 깊어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그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